

“11年 回顧”

成琦秀 (KAIST 시스템工學센터 所長)

경영과 컴퓨터 1987. 8. 『창간 11주년 기념 에세이』

1978年 9月 어느날 이창석 前 科技處次官의 부탁으로 某조찬회에서 演說한 것이 契機가 되어 故 진봉현 의료보험관리공단 初代 理事長에게 公團運營에 대한 즉석 자문을 하게 되었고, 1979年 1月 初까지 400萬名의 公務員, 軍人, 教師 및 그 家族에 관한 DATA BASE와 數千에 이르는 病院과 銀行支店, 職場 사이의 헤아리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와 돈의 흐름을 管理하는 情報 SYSTEM을 開發하기에 이르렀다. 開發着手 3個月 內에 醫療保險이 가동되어야 하고, 있는 豫算範圍 內에서라는 다소 常識을 벗어난 契約을 하게 된 것은, 成功時에 數百萬名에게 가는 의료福祉 惠澤과 失敗時에는 이 福祉制度施行에 어려운 狀況이 연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使命感과 意慾에 充滿된 數十名의 젊은 일꾼들이 Project Leader 김봉일 部長의 指揮下에 100日間 宿食을 같이하는 苦鬪 끝에 System 開發에 成功하였고, 의료보험 제1차년도 運營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2次年度에는 開發된 DATA BASE를 運營하면서, 郵便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DATA들을 電子通信化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 市.道 支部 DATA 通信網을 構築하여 3次年度부터는 公團에서 直接 運營하게 되었다.

1982年 初여름, 야간집무중인 강경식 新任 財務部長官의 電話가 있었는데, 實名金融去來하에서 全國的, 個人別 金融所得 DB를 構築한다면 實施 가능한 年度를 1983년부터 잡아도 괜찮겠느냐고 했다. 姜 財務와는 1970年の 豫算業務 EDPS와, 그해의 KIST-EPB 간의 韓國最初의 DATA 通信(2400BPS) 開設, 1978年の 行政電算化 示範(忠北) 道 土地 DB/DC 構築 등 여러 Project를 통해서 진취적 呼吸을 다져온 터였다.

당시 金融 및 證券機關의 電算化 程度는 50% 에 不過했으므로,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검토결과 나는 可能하다고 答했다. 얼마후 이른바 “實名制論難”이 일어났다. 마스크와 國會에서

는 論議가 粉紛했는데, 反對내지 時期尙早論이 壓倒的이었고, 많은 學者와 電算人들마저도 技術上의 否定論을 펴 이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나는 新聞, TV 등의 質問에 대해서 여진히 技術的 可能性을 力說했다. 그즈음 國會에서는 科學技術處는 否定論에 서서 國內 技術水準으로 는 어렵다는 答辯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國會에서는 나로 하여금 證言하게 하였는데 所信에 변함이 없느냐는 質問에 그렇다고 答辯했다.

이로 인해 여러 관계기관에 호출되어 證言과 論難을 하게 되었으나, 靑瓦臺에서는 姜 財務, 故 金재익 經濟首席 등이 配席한 가운데 진지한 說明과 활발한 討議가 있었다. 實名製法은 結局 절충된 案으로 國會를 通過하였고 實施準備次元에서 金融所得 DB 開發作業은 世界銀行資金 등의 支援으로 또 하나의 Crash Project로서 遂行되었다.

나의 예상대로 S/W와 DB는 1年間의 共同運營을 거쳐 國稅廳 컴퓨터로 移植될 수 있었고, 이 DB의 세력은 이미 1983년부터 歲入豫算을 훨씬 능가하는 稅收增大에 기여하는 등 科學稅政의 面貌를 나타냈으며, 參與研究員들에게 2년에 걸쳐 勳章이 授與되는 榮光을 갖게 하였고, 始終 技術評價를 해온 世界銀行은 KAIST가 IBRD 관련 世界各國의 行政電算化 Project에 參與할 資格이 있는 優秀機關으로 設定한다는 通報를 해오는 등 科學技術의 發展이 社會의 發展에 寄與하는 또 하나의 里程標를 마련한 셈이다.